춘천 성시신문

The Chun Cheon Holy City News

나 침 반
교회갱신 · 부흥 · 복음화운동
교회연합일치운동
새로운 도시 모범시민운동
세계복음화 기도운동

www.holycity.or.kr

발행인 : 유 진 형
편집인 : 박 상 호

2. 기독교와 3·1 운동 | 4. 한국교회의 통일준비 | 7.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교회 | 9. 물과 술의 소담(小談)

2005년 3월 1일
(1998년 9월 15일 창간) 제76호

평화통일을 위한 한반도 십자가 대행진

2월 22일 통일전망대 시발 3월 12일에는 춘천에서

한반도의 평화통일과 국민화합을 기원하는 '한반도 십자가 평화대행진'이 전국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뒤덮게 된다. 이번 십자가 평화대행진은 국방부와 경찰청, 그리고 해양경찰청의 후원으로 한국교회 부활절연합예배위원회가 전국적인 행사로 실시하는데, 독도와 제주도와 광양에서 출발하여 동부, 중앙, 서부 3개 지역 주요도시를 릴레이식으로 십자가를 메고 서울까지 갈 계획이다. 동부는 독도를 출발점으로 하여 독도출정식을 독도 앞 해상에서 가질 계획이었으나, 풍랑이 너무 심한 관계로 통일전망대에서 지난 2월 22일 발대식을 가졌다. 통일전망대에서 출발한 십자가는 강릉과 태백, 춘천을 거쳐 이달 26일 서울에 도착하게 된다.

춘천에서는 세계레저총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춘천 성시화를 소망하며 기독교연합회의 주관으로 '십자가 평화대행진'을 3월 12일(토)에 개최하게 된다.

춘천기독교연 합회에서는 2001년부터 3년에 걸쳐 성시운동본부와 자체적으로 가졌던 십자가행진의 노하우를 살려서 '십자가 평화대행진'을 보다 뜻 깊은 기독교문화 한마당축제로 벌이기로 했다. 이를 위하여 춘천의 모든 교회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3월 11일 홍천기독교연합회로부터 인수받은 십자가는 춘천에서 하룻밤을 쉬고, 3월 12일 오후 2시 삼천동 시민공원 야외음악당에서 교계지도자와 기관장과 성도들이 모인 가운데 발대식을 갖고 경찰선도차의 안내로 현수막, 십자가, 경찰악대, 기관장과 교역자, 방송차, 평신도들의 차례로 깃발과 피켓을 들고 즐지어 행진하게 된다. 행진코스는 삼천동 시민공원 야외음악당→중앙로→도청까지이며, 특별히 이번행사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부활장면 재현 및 마침에배를 드린다.

1부 예배는 경찰악대의 연주와 CBS합창단의 찬양, 춘천기독교연합회장의 인사, 축도 등의 순서로 진행되며, 1부 행사를 마친 후에는 주님의 고통과 아픔에 동참하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십자가를 메고 갈 수 있는 체험의 기회를 주고, 또 기념사진도 찍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2부 행사로는 십자가를 화천읍까지 메고 가서 인계하는 일인데 강변외곽도로로 사농등까지는 교대로 메고, 그 이후에는 자동차로 운송하여 화천기독교연합회에 인계함으로 끝을 맺게 된다.

춘천기독교연합회는 이번 십자가문화축제가 타종교에 뒤지지 않는 축제로서 성공적으로 치러지기를 기대하며, 그리고 더 나아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이 땅을 고치고 회복시키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소망해본다. 이를 위하여 춘천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협력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

[글 춘천기독교연합회]



이달의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세상을 품는 그리스도인

· 십자가 평화대행진
1만명 대행진을 계획하며 기도하는 기독교연합회의 비전을 원활하게 이루게 하시고 이를 통한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과 회복의 역사로 춘천에 푸르고 맑은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게 하소서

· 일본의 독도 망언 문제
이를 통해 국가적 자존감의 회복과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다시 새롭게 일어나게 하소서

· 북한의 핵선언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전쟁이 없는 평화의 나라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되 대통령을 위시로 한 모든 각료들이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소서.

· 중보기도 운동의 활성화
성시화 운동의 주체가 될 중보기도운동이 활성화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 춘천의 한교회 운동과 전 시민의 복음화를 위한 불씨가 일어나게 하소서

· 교육계를 위한 기도
현재 혼란한 청소년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차세대 민족의 지도자를 양성할 믿음의 대안을 가진 지성과 영성을 갖춘 중고등학교가 춘천에 서게 하소서



교회발전을 위한 대출이 이 정도는 되어야죠!!!

♣ 교회운영자금 및 건축자금 등 교회를 위해 필요한 자금
♣ 비용부담 최소화, 편리한 대출
♣ 대출기간 : 5년 (이후 연장 가능)
♣ 예금거래등 실적이 없어도 대출가능
♣ 전국적인 조직과 점포망으로 이자 납입과 원금 상환이 편리
♣ 타은행 대환대출 환영
♣ 최저금리 : 5.73% 부터

♥ 교인들의 부동산 담보대출도 환영합니다.

항상 전화상담 환영!!!

춘천원예농협온의지점

☎ 033) 243-6103	
춘천시 온의동 147 (럭키아파트 입구)	
대출상담	지점장 이 형 주
	계 장 이 정 우

춘천원예농협 본 · 지점	
본 점	☎ 033) 243-6100
봉내지점	☎ 033) 243-6102
남부지점	☎ 033) 263-6013

특 집

기독교와 3.1운동



성시연구소장 최 상 도(사암중앙성결교회 목사)



최근 3.1운동 당시 경기도 화성의 제암리교회 사건 등 일제의 만행을 생생하게 기록한 미국 선교사의 일기가 공개됐다. 이 일기는 1892년부터 1934년까지 42년간 한국에서 선교활동을 했던 미국 북감리교회 아서 노블 선교사의 부인 마티 윌콕스 노블 선교사가 기록한 것이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연회본부는 최근 이를 미국에서 입수해 26일 발간할 「3.1운동, 그날의 기록」이란 제목의 자료집에 이를 번역해 수록했다.

3.1운동 당시 한국에서 발생한 일들을 생생히 기록한 이 일기에 따르면 3.1운동 당시 경기도 화성군 제암리교회에서 일제에 의해 29명이 학살된 것 외에 화성군 일대만해도 16개 마을, 5개 교회에서 비슷한 만행이 자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3.1운동은 미국 윌슨 대통령의 민족자결주의가 세계적으로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고 있던 중 제1차 세계대전이 종료되고 1919년 1월 18일에 파리 강화회의가 열리자, 당시 식민지 · 반식민지 상태에 있던 여러 나라에서는 독립할 수 있다는 기대가 크게 일어났다. 우리나라에서도 상하이(上海)에 있던 독립운동가들에 의해 2월 1일 김규식이 파리 강화회의에 급히 파견되었고, 2월 8일에는 일본유학생들이 독립을 선언했다. 더구나 1월 21일 고종이 즉자 일제에 의한 독살설이 유포되면서 그동안 폭압적인 일제의 무단정치에 대한 민중의 분노가 더욱 높아졌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독교를 비롯한 천도교 · 불교의 지도자들은 3.1운동을 모색하게 되었다.



유 관 순 열사

교회 밖에서, 특히 좌파 성향의 역사학자들이 삼일운동과 관련한 기독교의 역할을 서술할 때 소극적인 면을 부각시키며 이를 바탕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경우가 많다. 기독교가 삼일운동에 참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역할은 크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인의 대표가 천도교 지도자 손병희 선생이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33인중 기독교인이 16명으로 가장 많았고(천도교 15명 불교 2명), 실제로 각 지방에서 조직적으로 삼일운동을 주도하여 참여한 사람들은 그 당시로는 가장 광범위한 지역 조직과 주민 동원력을 갖추고 있었던 기독교인들이었다. 천도교는 대표직인 민족종교이었지만 각 지방에서 인원을 동원한 천도교 조직이 별로 없는 실정이었다.

각 지방에 흩어져 있던 교회들은 길선주 목사와 이승훈 장로 같은 교계의 지도자들이 대거 참여한 독립선언의 정신에 동조하였고, 이에 고무되어 자발적이고도 조직적으로 만세 운동을 참여하였던 것이다. 더군다나 많은 교회가 고종 황제를 위한 추모집회를 가진 후 국부(國父)를 잃은 상실감과 민족 독립의 필요성에 고취되어 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그래서 민경배 교수는 "대저 교회 없이 3.1운동은 전국적 폭발에 이르기 어려웠다." 고 평가하였다. 당시의 목회자들은 삼일운동에 참여하는 것은 민족의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설교하였다. 자연히 삼일운동으로 인해 가장 많이 피해를 본 것도 교회와 기독교신자들이었다.

일제는 군국주의(軍國主義)의 본성을 드러내어 무력으로 진압하기 위해 경찰과 헌병 이외에도 용산에 있는 보병 3개 중대와 기병 1개 소대를 동원해서 시위 군중을 해산시키려 하였다. 그러나 빈손일망정 결사적으로 들진하는 시위 행렬을 쉽게 막지 못하였다. 헌병, 경찰, 군대까지 동원하여 만세를 부르는 우리 국민을 향해 총을 쏘고 칼을 휘둘러 죽이거나 잡아 가두었다. 교회, 학교, 민간인 집 등에 불을 질러 우리 국민을 위협하였다. 당시 이화 학당에 다니던 유관순은 고향으로 내려와 아우내 장터에서 만세 운동을 벌였다. 헌병대에 잡힌 유관순은 심한 고문에 굴하지 않고 옥 속에 갇혀서도 독립 만세를 외치다 1920년 즉음을 맞이하였다.

3.1 운동 이후 3개월간의 전국 독립만세 시위운동 상황을 보면 참가인원 202만 3,089명, 사망 7,509명, 부상 1만 5,961명, 투옥 4만 6,948명의 희생을 치렀다. 삼일운동의 정기는 그 후 상하이(上海)의 대한민국임시정부를 비롯하여 국내외에서 조직된 항일 독립운동의 정신적 기초가 되었으며, 우리나라의 근대 시민혁명 의식과 자주독립적인 국민국가의 수립, 민족의 통일을 위한 민족정신으로 오늘날까지 면면히 계승되고 있다.

삼일운동이 일어난 후 6개월 동안 체포된 사람 중 기독교인이 17.6%이었고, 5월까지 파괴된 교회의 수와 체포된 교역자의 수로 보아도 기독교의 피해가 가장 심했던 것을 알 수 있다.

기독교가 처음 한국에 들어왔을 때 선교사들은 교육, 의료, 각종 사회운동을 전개하였고 새 시대와 새 문물을 향한 계몽과 개화의 전위대가 되었다. 많은 민족의 선각자들이 교회에 들어오므로 한국교회는 겨레와 민족의 장래에 희망을 주는 귀중한 역할을 감당하였다. 당시로서 한국교회는 시대에 앞서 기면서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잘 감당한 것이다. 한국인들의 의식 개혁과 생활의 근대화를 위하여 금주 · 금연운동을 전개하고, 아편과 공창 폐지를 위한 사회 운동을 전개하였으며, 남산(男産)을 장려하고, 신교육을 시행하고, 성경구락부의 이하음 봉래 한남교육과 사회 계몽운동을 전개하였다. 따라서 당시의 기독교인의 수가 전체 국민의 1%가 채 되지 못했지만 사회적인 지도력과 영향력과 공신력은 아주 대단하였던 것으로 평가 할 수 있다.

하지만 오늘의 과제는 한국교회가 민족의 장래에 새로운 희망을 주는 종교로서의 역할을 지금도 다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다원종교 사회에서 어떤 특정 종교가 그 사회에서 20%이상의 신자를 가지게 되면 그 후부터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사회적 공신력을 높이지 않으면 교세 성장이 한계에 직면한다고 한다. 한국교회의 지속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라도 교회가 모든 면에서 시대에 앞서가야 하며, 새 시대의 새 희망의 좌표를 제시하는 사회적 지도력과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사회봉사와 사회적 책임을 감당함으로서 사회적 공신력을 강화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춘천성시신문
편집위원 : 박상호 조영춘 최영조 최상도 정재호 이영규 김춘배 김규현 김수영 이희영 김미경
원고투고 및 광고 문의
200-091
춘천시 효자1동 373-90
춘천성시신문 앞
대표전화 : 033)256-1260
FAX : 033)257-1260
011-361-2004
010-7347-9004
010-3118-9355

Habitat for Humanity Chuncheon
해비타트
- 한국사랑의 집짓기 운동 연합회 춘천지회 -
집을지어요
우)200-030 춘천시 요선동 9-1 TEL : 254-0009 FAX : 254-8877 E-mail : chuncheon@habitat.or.kr



한국사랑의 집짓기운동 춘천지회에서는 금년도 다세대주택 2동8세대가 입주할 사랑의 집을 지어 입주시키고자, 입주 가정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2005. 2. 1~ 2005. 3. 15 까지 본지회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254-0009

춘천 영적지도자 100인에게 듣는다.

춘천경찰서 경목실장, 춘천교역자연합회 회장, 한국장로교연합춘천지회 회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김유식목사님과의 인터뷰입니다.



조: 목사님, 반갑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춘천지역에서 교회 연합운동의 대표적인 인물이시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사역에 헌신하시게 된 계기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찬의 말씀입니다. 저희 집안은 무당 집안이었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열심히 충성을 다하시다 몇 년 전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셨지만 저는 어려서부터 왠지 부모님께서 천직으로 알고 섬겨 오시던 무속신앙을 아주 싫어했어요. 그러던 차에 전도를 받고 고향 마을의 교회를 다니며 성경을 배우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웃 마을교회에서 열렸던 부흥사경회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부흥강사 목사님께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것이 계기가 되어, 목회자가 되겠다고 결심했던 것 같아요. 그 후 제가 21살 되던 해인 1968년 대전 한국성서신학교(현 한성대학교전신)에 입학하였고, 군 제대 후에는 한국신학대학교에서 공부하였습니다.

정: 목사님께서는 조목사님께서 소개하신 것처럼 지역연합운동의 대표적인 인물이십니다. 연합운동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저는 분파를 아주 싫어합니다. 그런데 세상과는 달라야 할 교회까지 분열하는 것을 볼 때 마음이 매우 아팠습니다. 그래서 연합운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1987년도에 춘천에서 경찰북음회에 관심을 가지고 교경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교경사역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저는 1974년부터 민주화운동을 적극적으로 반정부활동을 하면서 경찰관들하고 부딪히게 되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해보니까, 경찰관들도 피해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피해자들끼리 싸움을 하는 거에요. 한심한 생각이 들더군요. 그때부터 경찰관들에게 친밀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정부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잘한 것은 잘한 것으로 평가해 주고, 못한 것은 못한 부분대로 고쳐나가는 것이 올바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경찰 선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교경사역을 하면서 반정부활동을 함께 하던 동역자들로부터 오해도 많이 받았습니다만 연합활동에서 오는 보람으로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신앙생활을 하시는 많은 경찰관들을 볼 때마다 큰 도전이 되었고, 유치장속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을 가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한 이 일을 계속해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조: 목사님께서는 1972년 이래로 전개되어 오는 춘천성시화운동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제가 볼 때 춘천성시화운동이 성공적으로 전개되기 위해서는 목회자와 평신도들이 잘 연합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성시화운동은 평신도 중심으로 전개할 운동도 아니고, 반면에 목회자들만의 힘으로 이루어질 수도 없습니다. 현재 전개되는 성시화운동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어요. 목회자와 평신도들이 함께 어우러져 협력하는 것을 볼 때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춘천성시화운동이 일찍이 시작되었음에도 급성장하지 못한 것은 평신도 중심으로 그것도 지휘관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앞으로는 소망이 있습니다. 저도 힘껏 협력하겠습니다.

정: 연합운동은 참으로 힘든 것 같습니다. 연합운동을 할 때 특별히 유의해야 할 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연합운동은 밑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머리서부터 시작하는 운동은 얼마 못가요. 비록 위에서부터 시작했다 할지라도 아래로, 밑으로 확산되어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래서부터 연합운동이 일어나 불이 붙어야만 성공할 수 있어요. 강압적이고, 강제적인 분위기로는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또한 교회연합운동에 있어서, 큰 교회들은 작은 교회들이 앞장설 수 있도록 큰 울타리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연합운동이 기존 큰 교회, 큰 교회 목회자들 중심으로 되면 작은 교회와 작은 교회 목회자들이 설 자리가 없어요. 큰 교회와 목회자들은 감당해야 할 역할이 있어요. 작은 교회 목회자들도 감당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필요하셔서 세우셨습니다. 모든 교회, 모든 성도, 모든 목회자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연합운동이 되어야 합니다.

조: 목사님, 성시화와 복음화! 이 둘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사실, 성시화라는 용어가 현대인들에게 매우 생소하고, 그 의미가 잘 전달되지 못하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성시화라는 복음화가 100%된 사회 혹은 기독교가 국교화가 된 사회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오늘날과 같은 사회에서 성시화란 용어를 사용하면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오히려 성시화를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서는 복음화라는 말이 더 적합하고, 의미가 잘 전달될 수 있어요. 성시화시켜야 한다' 그러면 타종교인들이 반발합니다. 무모한 종교 간의 갈등과 마찰이 야기될 수 있어요.

정: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 춘천성시화를 이루어 가는데 적합한 전략과 용어를 창의적으로 연구하고, 폭넓은 공론화를 통해 합의를 도출해 내야 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을해 경목실장, 장로교연합회 회장, 교역자연합회 회장 등 많은 연합사역의 책임자로 섬기게 되셨는데요. 계획 중인 주요행사를 간략하게 소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부족한 자를 각 연합회 회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의 기도와 협력이 없이는 제가 한 가지도 할 수 없습니다. 먼저 많은 협력을 부탁드리고 싶어요. 저는 경목실장으로 교경협의회 회장님, 임원들과 상의해서 각 지구대 복음화를 위해 조직을 교경협의회와 경목위원회로 이원화할 생각입니다. 그래야만, 교경협의회의 후원과 지원을 받아 경목위원들이 지구대 복음화를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6월중에, 춘천경찰서 교경협의회 말씀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로교연합회의 우선적 과제는 목회자와 평신도들이 함께 협력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또한 큰 교회와 작은 교회가 각기 제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사랑 안에서 연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러한 연합을 위해 4월중에 연합체육대회와 10월중 연합부흥회를 계획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역자연합회는 목회자들의 친목활동입니다. 이러한 목회자의 친목활동은 매우 중요합니다. 목회자들이 사랑 안에서 연합되어야 교회차원의 연합이 잘 될 수 있어요. 교역자연합회는 춘천복음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기독교연합회를 지원할 것입니다.

조: 목사님 정말 귀한 생각과 사역들입니다. 목사님을 통해 이러한 일들이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끝으로 연합회의 여러 임원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제 평소 생각은 이래요. 연합활동 이전에 성시화, 복음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춘천에 사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한 교회 한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작은 일들이 모여서 복음화를 이루고, 성시화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연합활동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잘 참석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잘 참석하다보면,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되어서 오해와 불신이 사라지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동역자 의식이 함양되게 됩니다. 부족한 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시 : 2005년 2월 21일
장소 : 춘천경찰서 경목실
진행 : 조영춘
글정리 및 사진 : 정재호, 김미경

한국교회의 통일준비



강원대 명예교수 조인형(영세장로교회 장로)

매해마다 국내외적으로 도처에 크고 작은 지진 · 홍수 · 폭설 · 대형화재 · 폭발사건 등이 자주 발생한다. 특히 2004년 12월 26일에 남아시아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아체주에서 발생한 지진에 따른 해일의 피해로 28만 여명의 인명 상실과 천문학적인 재산상의 피해를 초래했다. 이런 해일 피해의 경고를 믿고 신속하게 대처했더라면 그토록 막대한 피해를 어느 정도는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토인비(A. J. Toynbee)는 인류역사의 발전 원리를 도전과 응전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어떤 도전이 왔을 때, 이에 대한 바람직한 응전이 발전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응전은 반드시 준비를 필요로 한다. 준비 없는 응전은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도전이 오기 전에 앞으로 어떤 도전이 올 것인가를 미리 예상하고 만반의 준비를 통해서 응전하려는 지혜야말로 어떤 도전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예수님께서 10처녀의 비유로 신랑 맞을 준비를 강조하고 있다. 10처녀 중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기름을 준비한 5처녀는 신랑을 신부의 집으로 인도할 수 있었으나,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처녀는 그렇게 할 수 없었다. 이처럼 준비 없는 응전은 백전백패(百戰百敗)다.



1989년 11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이전에 서독의 콜(Helmut Kohl) 수상은 아마 독일통일은 앞으로 10년쯤이나 지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하지만 독일 통일은 이같은 콜 수상의 예상을 깨고 어느 날 갑자기 찾아 왔다. 그래도 서독은 통일준비를 꾸준히 착실하게 해 왔기에 큰 무리 없이 갑작스러운 통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나라는 올해 분단 60년이 되는 듯 깊은 해를 맞이했다.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4대 강국들은 북한의 핵 문제 해결과 앞으로의 북한 붕괴문제에 관심의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2005년 2월 10일 북한 당국이 외무성 공식 성명을 통해 6자회담을 거부하면서 핵무기의 제조 및 보유를 선언함에 따라,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뿐만 아니라 세계의 이목이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집중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을 악의 축 내지 폭정의 전초기지로 간주하고 북한이 계속 핵을 개발하여 보유를 고집하려 할 때, 미국은 이 문제를 6자 회담을 통해 해결하려고 여러 차례 시도하겠지만, 끝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여러 형태의 제재조치나 유엔 안보리에 상정하여 국제 여론을 등에 업고 제재 조치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렇게 북한 핵 문제가 악화 단계에까지 이르러 한반도가 세계 분쟁의 화약고가 되지 않도록 기독교인들은 깨어 기도해야 할 때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정권이 붕괴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지만, 국내외의 대부분의 북한문제 전문가들은 북한정권은 붕괴의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앞으로의 상황 전개에 따라 점진적 붕괴나 급진적 붕괴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만일 북한 김정일 독재정권이 붕괴되었을 때, 남한이나 미국이 개입할 경우 중국이 개입할 것이고, 한반도 문제에 이렇게 중국과 미국이 개입할 경우 일본은 미국편에, 러시아는 중국편에 가담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은 한반도가 한말(韓末)의 청일전쟁, 러일전쟁의 재판과 유사한 국제적 분쟁지역이 될지도 모른다. 이런 와중 북한 정권이 주민을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를 때에, 북한의 수백만 명의 주민들이 남한이나 중국과 러시아 등으로 탈북을 시도할 것이다. 이럴 때에 한국교회는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남한은 1950년 6 · 25전쟁 때 북한의 수백만 명의 피난민들과 득일통일 과정에서 등독 주민들이 서독으로 수백만 명이 이주한 것을 상기해 보면서, 앞으로 한반도에서 전개될 예상되는 변화에 슬기롭게 대처할 준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이미 남한에 와 있는 새터민들에 대한 관심은 물론이거니와 앞으로 북한 체제를 탈피하여 밀려오는 북한 새터민들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대비해야 할 것이다. 우선 남한의 기독교인들은 무엇보다도 그런 대량 새터민들을 우리와 똑같은 형제로 생각하고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태세가 필요하다. 과거에 이념이 다른 공산체제에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해서 적대의식을 가지고 이방인들처럼 대한다면, 민족 간에 갈등이 또다시 재연될 것이다. 특히 기득교인들은 지난날 북한 주민들이 공산독재체제에서 본의 아니게 피해를 당한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새터민들을 진정한 기득교정신을 가지고 따뜻하게 사랑의 마음으로 받아들일 준비태세가 절실하게 요청될 것이다.

또한 북한 체제가 붕괴되었을 경우, 그 체제의 이념을 대체할 새로운 이념의 요구가 현실적으로 대두할 것이다. 그 때 한국교회는 북한지역에 복음 선포와 더불어 기독교인으로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준비가 필요하다. 이런 것은 1990년대 초 등구권과 소련이 붕괴된 후 공산주의 국가에서 오늘날까지 무엇이 현실적으로 요청되어 왔는가를 생각해 보면 자명하게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황폐한 등토에 살고 있는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들에게 한 조각의 빵이라도 함께 나누어 먹으려는 마음의 자세 없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한다면 그들이 진정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북한의 피난민들과 상생(相生)하면서 북한지역을 복음화 하는 일은 말로만 되는 일이 결코 아니다. 이 모든 것에는 공생(共生)하려는 열린 마음의 준비 자세와 더불어 경제적 준비가 필수적이다.

전(前) 주미 대사였던 김경현 교수는 「흡수는 없다」라는 논문에서 앞으로 수년 이내에 김정일은 개혁주의자들이나 강경 군부에 의해 축출의 길에 놓여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또한 국제적인 북한문제 전문가라 할 수 있는 미국의 존스홉킨스대학 마커스 놀랜드(Marcus Noland) 교수는 「김정일 이후의 한반도」라는 책에서, 그는 북한의 미래를 현상유지, 점진적 변화, 혁명적 붕괴 등 3가지로 예상하면서 한국이 북한 정권의 붕괴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북한 정권의 붕괴로 남한에 의해 흡수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남한은 향후 10년간 6,000억 달러 규모의 통일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므로 한국교회는 언젠가 북한의 상황이 완화되어 국제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요동치면서 북한 주민들이 이탈할 때, 그들과 아픔을 함께 할 준비태세가 필요한 동시에, 반세기가 넘도록 닫시즘에 물든 황폐한 등토에 복음의 씨앗을 심을 구체적인 선교준비가 요청되는 때다. 그런 목적을 이룩하기 위해 한국교회의 기독교인들이 합심하여 끊임없이 깨어 기도하고 계획하여 실천에 옮겨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한국의 기독교인들에게 선교적 지렁을 확대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민족의 숙원인 통일에도 크게 기여하게 해 주실 것이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섬김의 교회

교육전도사 님을 모십니다.

◎ 담당부서/ 교육부서
◎ 자격/ 신학을 공부 중 또는 공부하신 분(학교 교단 불문)
◎ 사례/ 학비 50% 드리고 자세한 것은 상담 후에 결정합니다.
◎ 참고/ 춘천에 거주하시고 개척교회에 사명감을 가지신 기혼이면 더 좋겠습니다.

※ 팩스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부탁드립니다.

Fax : 033)261-3348 / 016-419-3390(교육위원장)
010-3179-0820 담임목사 권 태 현
200-933) 춘천시 석사동 180(중앙병원 아래쪽)

십자가 평화대행진

'한반도의 평화 통일과 국민화합을 기원하며'

■ 일 시 : 2005년 3월 12일(토) 오후 2시
■ 장 소 : 삼천동 시민공원 야외음악당
■ 문 의 : 춘천기독교연합회
033) 256-1260 / 017-370-4831

※ 춘천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주께서 명하시면 가리이다'

필리핀오지 미전도종족 선교팀 보고서

2005년 1월 23일부터 29일까지 6일간에 걸쳐 우리 가족선교팀 일행은 필리핀 미전도종족을 대상으로 선교를 다녀왔다. 장소는 필리핀 루손섬 바기오지역 및 오로라주 인근의 해안마을로써 장로 1명, 집사 10명, 대학부 1명, 중고등부 6명, 유초등부 3명에 유치부 5살 어린 요셉이에 이르기까지 6가족으로 구성된 순수 패밀리 선교팀이었다. 이 구성원 중 유일하게 2명만 단기선교의 경험이 있었고 나머지 구성원은 처음 떠나 본 선교여행이었다. 이런 구성원 형성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퇴계2구역이 애초 선교비전을 품을 수 있도록 교회에서 의도적으로 기획 · 편성하여 주로 교사, 교육계 직업에 종사하는 성도들로 구성된 특별시범구역이었기 때문이다.

우리 구역에서는 매달 선교비를 모아 필리핀 현지의 미전도종족인 '일롱곶족'(화전민족)의 한 자매(간호대학재학중인 '테베사')의 교육비를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번 선교여행은 그 자매를 직접 만나서 현지상황을 알아보고, 필리핀에 거주하는 한국선교사님을 연결하여 복음이 미치지 않은 미전도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



이 선교사역을 위해 우리 구역식구들은 1여년 전부터 기도로 준비하였으며 최근 두 달여 동안은 매주, 때론 매일 모여서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선교 훈련에 돌입하였다. 여러 사역 중에서 어른들에게 분담된 이미용(머리깍기)담당을 위해 이발기구를 구입하고 미용자격증을 가진 교회집사님으로부터 짧지만 고난이도(?)의 훈련을 받으면서 일어났던 각종 헤프닝과, '다윗과 골리앗'의 주제로 영어인형극을 준비하며 느꼈던 고충 속에서도 모두가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었던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확증이었다.

우리 자녀들로 구성된 청소년팀과 초등학생팀 역시 영어 바이블스토리 전하기와 단소, 리코더를 통한 찬양연주로 맹훈련을 받았다. 그리고 선교물품준비 및 각종 계획수립을 맡으셨던 분들 또한 노고의 결실 끝에 세밀한 안내책자작성과 철두철미한 진행과정을 준비하셨다. 그 외에 집회 전 이벤트로 준비한 페이스페인팅과 풍선아트공에 역시 준비과정에서는 수십 개의 풍선을 터트려가며 힘들게 연습했지만 실제 필리핀 현지에 가서 전도대상자를 집회장소로 불러 모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사역이어서 많은 보람을 느꼈다.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3시간반여 만에 도착한 마닐라공항에서 바기오까지의 험난했던 6시간의 밤길이동 후, 이또곤교회(근처 체육관을 빌려서 예배처로 씀)에서의 첫 집회에는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 피곤한 몸으로 아직 현지의 적응이 안 된 우리팀과 현지인들이 서로 맘이 하나 되지 못한 탓이었는지 우리의 첫 기대와는 달리 다소 형식적인 듯한 집회로 마감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그날의 집회를 통해, 선교는 자신의 재능과 열심이 아닌, 주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임해야 하며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임하셔야 한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았다. 또한 눈물의 기도 없이는 할 수 없다는 사실도 깨달았다.

둘째 날 비포장도로와 야자수 숲 사이로 끝없이 난 길을 따라 약 8시간의 이정 끝에 도착한 곳은 해안 오지마을 '아우보라'였다. 그곳에 있는 '아우보라교회'에서 두번째 집회를 열었다. 예배당이라야 거친 벽돌을 그대로 쌓아올리고 덮히는 문이 아닌 뚫려있는 출입문 2개와 나무로 얽은 세모형 천정과 창 2개가 전부인, 10평도 채 안 되는 공간 안에 깨진 벽걸이 시계와 찬양을 위한 전자악기류세트(예전에 방문한 다른 선교팀으로부터 헌물받은 듯함)가 전부인 교회였다. 거기다가 너무나 검소한 성품과 작은 체구에 남루하기 그지없는 짧은 양복을 입고 계신 69세의 필리핀현지목사님을 뵈면서 가슴 깊은 곳에서 밀려오는 알 수 없는 울림으로 우리 모두는 숙연해 질 수 밖에 없었다. 이런 오지의 예배처와 헌신하는 사역자들의 은혜로 인해 야자수와 펼쳐진 해안 때문에 표면상으론 더없이 아름다우나 물질적으론 너무나 빈곤한 그들이 집회 내내 평온과 밝은 표정을 보여줄 수 있던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두세 살 된 연년생의 아기를 하나는 끼고 하나는 얼러가며 불편하기 그지없는 좁은 의자에 앉아 집회 내내 눈을 떼지 못하던 나이 어린 어머니, 헤지고 때 묻은 옷을 입었으나 눈망울이 한없이 맑던 순수한 아이들, 불편한 몸으로 열심히 집회를 지켜보던 어떤 노인분과 몇 안 되던 중년의 남자들... 그들에게 집회가 끝난 후 전도용품으로 준비해간 타올과 문구용품, 막대사탕 등을 일일이 전해주며 "JEJUS love you, you love JEJUS" 를 얼마나 힘주어 전했던가! 한 알의 씨앗(복음)이 그들 영혼으로 들어가 싹을 틔울 수 있게 해달라는 간절함으로... 그런 우리의 의미를 헤아린다는 듯, 눈빛으로 응수하거나 미소로 답하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 임재하심을 절실히 느꼈다. 필리핀 이 오지의 땅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다음날, 오전 집회는 한팀은 이발사역 봉사로, 한팀은 근처의 초등학교로 전도집회를 나갔는데 한반 정도의 인원소집을 기대했던 우리의 소망과는 달리 하나님은 네 임을 크게 벌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전교생 200명 정도를 한 강당에 모으게 해주셨고, 준비해간 순서들로 성공리에 전도를 마치고 들어오게 하셨다. 학교집회를 마치고 돌아온 팀의 모습은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장군의 표정들이었다. 4영리를 전할 때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자리에서 일어난 학생수가 굉장히 많았으며 인형극공연(테이나서 처음 보는 인형극이라고 함)역시 폭발적인 호응을 얻어서 모두가 감격의 눈물로 감사했던 집회였다.

마지막으로 갔던 '바이또리안'교회 집회 때도 찬양의 열기로 뜨거워지는 어린아이들(유초등생)의 율동과 아멘소리의 울려 퍼짐은 성령이 임재하셔서 역사하심을 느끼게 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갔던 그곳에서 오히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얻어서 돌아왔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각에도 빛도 없이 고난 속에서 헌신하는 선교사님과 필리핀현지 목회자들을 기억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필리핀선교 일정을 통해 우리는 귀한 것을 깨달았다.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 우리는 단지 그의 선한 도구가 될 준비와 훈련으로 양육되어 쓰임 받아야하며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닌 우리 믿는 자들의 필수사항인 것'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을 모르는 많은 영혼들이 소망이 무엇인지 조차 깨닫지 못하며 태어났다 쓰러져 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분분히 일어나야 한다. 주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구원의 '소망'을 주셨듯이 이제는 그 빚을 우리가 갚아야 한다. 선교는 특별한 누군가가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소망을 품는 우리 모두가 함께 합력하여 해야 할 의무임을 말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1:8)'

이제 우리 구역원들은 다시 기도로 준비하기며 꿈꾸고 있다.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지속적인 선교지가 될 필리핀 미전도종족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켜 다시 보내 주옵소서... 주께서 명하시면 가리이다...'하는 맘으로

[춘천제일장로교회 퇴계2구역 이향숙 집사]

부활절 연합 예배

■ 일 시 : 2005년 3월 27일(일) 오전 5시
■ 장 소 : 춘천시청 광장
■ 문 의 : 춘천기독교연합회
033) 256-1260
※ 춘천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사진의 명가
귀빈스튜디오
[주공 1단지 시장 옆]
▶ 백일 · 돌 · 웨딩사진촬영
▶ 교회임직 가족사진 촬영
대표 신 병 철
(순복음춘천교회집사)
전 화. (033) 253-8608 / 휴대폰. 011-377-2599

성시화(聖市化)의 꿈은 하나님의 것



글 김성호 목사(강촌감리교회)

어느 민족이나 나라마다 건국 신화가 있다. 우리나라 건국 신화를 보통 단군신화라고 한다. 우리는 이를 건국 신화로 이해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창조신화(創造神話)로 보는 게 더 맞는 말이다.

BC 2333년에 건국된 조선(朝鮮 단군조선, 혹은 고조선이라고도 하는데 그것은 근세조선과의 구분을 위해 그렇게 역사학자들이 명명한 것)이라는 나라의 역대 통치자였던 단군(壇君-제정일치 시대인 조선 통치자의 대명사로 애급의 바로라는 명칭이나 로마의 케사르라는 명칭과 유사함)중에 초대 단군인 임금(壬儉-많은 경우 왕검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는 임금이 맞다. 그래서 후세대 우리는 왕을 임금이라 부르게 된 것이다.)을 신격화하고 실존의 조선 역사를 신화화(神話化)시킨 것은 삼국유사(三國遺事)라는 책에 의한 것이다. 삼국유사는 일연이라는 불교인이 쓴 확인데 이는 사실적 역사의 수록이라기보다는 역사의 뒷이야기, 그리고 신화나 설화를 묶어놓은 책으로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한민족 고유의 메시아니즘이 이 책의 내용에 많이 반영되어 있음을 알게 된다.

사실 단군 임금이 조선을 건국하기 이전부터 우리에게 전래되어오던 원 신화가 있는데 그 신화는 삼일신(三一神 한님-造物主, 한걸님-造化主, 한검님-治化主)) 신앙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기독교의 삼위일체론과 거의 일치되는 신론이다.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다.

다시 말하지만 한민족의 신화는 창조신화(創造神話)이다. 그 신화는 신시 개천(神市開天)으로 시작되는데, 神市開天(신시 개천)이라 함은 하늘을 열어 나라를 세웠다는 말이다. 우리 옛 문헌에 보면 개천은 곧 창조라고 했다. 여기의 신시(神市)는 성서의 에덴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렇다면 신시 개천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알리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이를 조용히 상고하여 보면 이미 역사를 통해 하나님은 한민족에게 하나님의 꿈 곧,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미리 알리시고 이를 성취해가는 과정 속에 우리 한민족을 도구로 불러 주실 것을 예정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한국 기독교 복음 전래의 역사나 현재 한국 기독교의 성장과 부흥, 그리고 세계 선교의 역할과 결과를 보면 더욱 확실해진다. 사실 한민족사를 면밀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섭리가 확연하고 놀랍게 드러난다.

필자가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은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우리 역사를 잘 모르거나 잘못 이해하고 있고, 또한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앞으로 기회가 되는대로 한민족사의 구속사적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자료들을 성시신문지면을 통해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춘천 성시화(聖市化)운동은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창조의 역사이다. 하나님의 계속적인 창조 역사이며,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요, 하나님의 나라 운동이다. 그러므로 성시 곧, 신시(神市)는 우리 인간이 이루어가는 것이 결코 아니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다. 다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소명)에 응답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사명을 가지고 동참하고 마음을 드림으로 함께 이루어 가는 것이라 하겠다.

마태복음 3장 13-17절과 마가복음 1장 9-11절, 그리고 누가복음 3장 21-22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고, 요한복음 1장에는 세례에 대한 세례자 요한의 증언이 나온다. 그 세례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그 장면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운동이,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는 것으로 시작됨을 보게 된다.

신약의 복음서는 우리에게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신 구약 성경에서 계속 보여주신 하나님의 꿈인 하나님의 나라 성취의 과정 곧,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창조의 역사에 이 춘천이라는 도시와 여기에 발을 디디고 사는 우리를 참여토록 부르신 것이다. 이 창조 사역의 한 부분으로 춘천을 성시 곧, 신시(神市)-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며 변화시켜 가시는 일에 우리를 부르셨고 세우신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먼저 내가 무엇을 이루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당대에 큰일을 이루겠다는 욕심도 버려야 한다. 그리고 조급함도 버려야 한다. 하늘이 열리는 사건 속에서 성령의 기름 부어주심의 일이 먼저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 후에야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에 값지게 사용되는 기쁨과 영광을 맛보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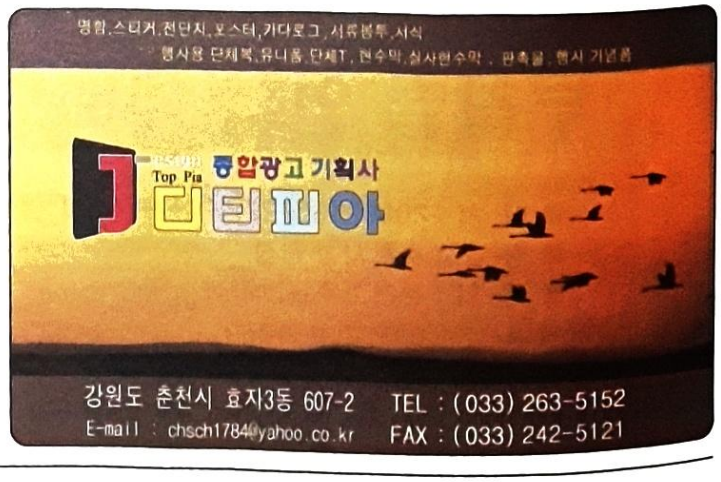
우리 세대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많이 활용하던 영어 공부의 고전 『삼위일체』란 책이 있었는데 그 책 서두에 이런 말이 있다. "Slow & Steady" 영어 공부에는 왕도가 따로 없음을 강조하고 있는 말로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공부하라는 것이다.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춘천 성시화운동도 마찬가지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나라 사역은 2000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신시개천(神市開天 곧, 하나님 창조 역사인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하늘이 열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한 이들의 성실한 응답과 참여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다.

춘천 성시화의 꿈은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닌 영원하신 하나님에 의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사건-신시개천(神市開天)의 역사 속에 시작된 꿈이며 반드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비전이다. [다음 호에 계속]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교회

의미있는 교회탐방순서로 소양제일교회(이주호목사)편입니다.

춘천 퇴계동에 소재한 소양제일교회는 소양교회(이원호목사)가 분립 개척한 교회로, 소양제일교회가 속한 교단인 기독교대한성결교회에서도 매우 성공적인 개척사례로 전국에 알려진 교회이다. 분립개척은 1996년 11월 3일, 이주호목사를 중심으로 홍순봉장로(63세)등 소양교회의 퇴계동 구역 장년 10가정(중고등부포함 20여명)으로 이루어졌는데, 8년여가 지난 현재 장년 300여명에 이르는 중형교회로 발돋움하고 있다.

3개의 봉우리

이주호목사는 경남 김해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서울신학대학교 신학과를 거쳐 동대학 신학대학원을 거쳤다. 이목사는 어려서부터 교회는 반드시 그 사회와 함께 가야한다고 믿는 믿음이 있었다. 교회가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우리나라 사회복지현실이 열악하기에 사회복지목회를 해야겠다고 결심했다고 한다. 이런 사회복지에 대한 남다른 관심으로 숭실대학교 대학원에서 사회사업학을 전공하면서 그 꿈을 구체화시켜 나갔다.

소양교회 부목사 시절 사회복지목회에 대해 보다 실제적으로 기도하던 중 이러한 꿈을 담은 교회를 개척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님이 부어주셨다고 한다. 원주권에서 교회를 개척하고자 준비하던 중 소양교회 이원호목사의 권유로 춘천 퇴계동에 교회를 설립하게 되었다. 모교회의 전폭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개척교회가 같은 지역에 위치한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매우 획기적인 일이었다.

이주호목사는 교회 개척시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에 관한 3개의 이상(理想)을 교우들과 자주 나누었다고 한다. "저에게는 성경적 교회에 대한 이상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사회가 충분히 관심을 갖지 못하는 음지의 일들을 교회가 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을 저는 교우들에게 정복해야 할 3개의 봉우리로 수시로 역설했는데, 첫 번째 봉우리는 호스피스사역, 두 번째 봉우리는 어린이사역, 세 번째 봉우리는 장애인사역이었습니다. 현재는 호스피스사역이 만족스런 상태에 있고, 어린이사역은 좋은 출발을 보이고 있으며, 장애인사역과 노인사역을 보다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주호목사가 뜻있는 지역목회자들과 교우들이 함께 창립하여 대표로 섬기고 있는 봄내호스피스는 전국 호스피스시설 중에서도 양질의 시설과 훌륭한 봉사자들을 갖추어서 춘천권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좋은 모델로 알려져 방송에서도 소개된 바 있다. 봄내호스피스는 2007년까지 호스피스병원으로 세우고자 기도하고 있다. 소양교회 어린이사역은 정원 100명으로 작년 3월에 개원하였는데, 학부모들이 새벽부터 줄을 서서 등록하고자 할 정도로 이웃의 주민들에게 인기가 높다고 한다.

제자를 훈련하는 교회

이주호목사는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특별한 어떤 프로그램을 신시하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교회가 건강하면 자연적으로 성장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목사는 교회성장을 '바둑'에 비유한다. 바둑에 있어서 집을 짓는 것이 중요하지만 자기 집만을 지으려는 소극적인 생각보다는 공격적인 마인드(Mind)로 판을 넓게 볼 때 훨씬 승산이 높다는 것이다. 즉 교회가 자기 교회성장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할 때 자연스럽게 교회 성장은 가능하게 된다는 논리이다.

그러나 소양제일교회는 사회봉사와 함께 매우 영성있는 공동체로도 알려져 있다. 현재 15개가 넘는 증보기도모임이 있으며, 동시에 탄탄한 제자 훈련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주호목사는 사회봉사 그 자체만으로는 의미가 축소된다고 힘주어 말한다. 이목사는 교회의 영성을 중시한다. 이 영성 없이는 사회봉사도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소양제일교회의 영성의 원천은 제자훈련과정이다. 제자훈련과정은 서울 사랑의교회, 서울 온누리교회를 모델로 하여 보다 창조적인 종합으로 짜여졌다. 새가족이 처음 등록을 하게 되면 5주 동안의 새가족반에서 양육된다. 새가족반은 구원론을 중심으로 다루며 모든 새가족이 반드시 참여해야할 과정이다. 그 후에는 16주에 걸친 1:1제자훈련과정, 그리고 10주의 신구약성경개론과정이 이어진다. 이정도의 훈련을 받아야 소양제일교회의 정회원이라고 할만하다. 그 이후에 영적 지도자로 서려면 제자훈련(1년과정), 사역훈련(1년과정), 전도폭발, 목자훈련으로 이어진다. 전체 제자훈련 사이클은 3년 정도가 소요되는 편이다.

현재 이 훈련을 수료한 교우들은 40명 정도. 이들이 교회교육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다. 1년 과정의 제자훈련이전 과정은 모두 평신도들이 담당하고 있을 정도로 잘 훈련된 평신도 지도자들을 갖추고 있다. 이사 등의 이유로 전입해온 기존 신자들은 직분은 유지시키되 모든 교육과정은 반드시 거치도록 한다는 거룩한 고집도 엿보인다.

선교지향적인 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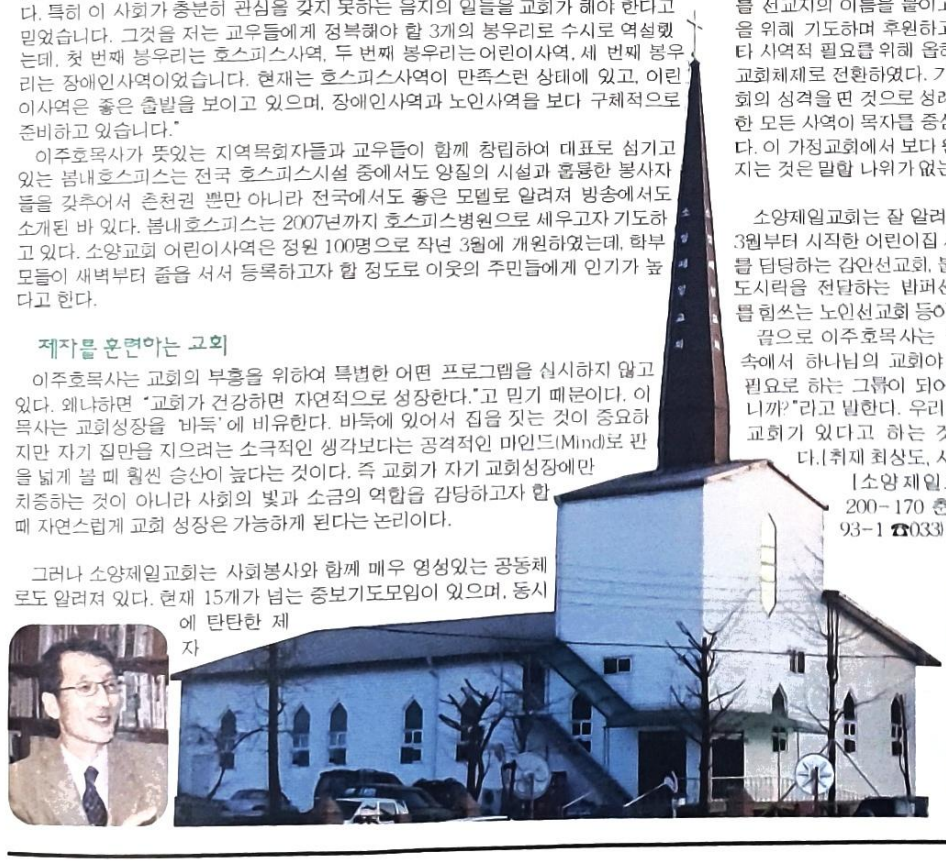
소양제일교회는 개척초기부터 경상예산의 30%이상을 선교비로 사용하고 있지만 현재에 이르러서는 70-80%가 선교예산으로 사용되고 있다. 전임사역자 5명의 사역비와 교회 최소한의 교회유지경비 외에는 선교비로 사용되는 셈이다. 목장(구역)자체를 선교지의 이름을 붙이고, 아시아 22개국을 비롯하여, 아프리카 8개국, 남미 8개국을 위해 기도하며 후원하고 있다. 선교사역의 활성화와 기타 사역적 필요를 위해 올해부터 목장체제(구역)를 가정교회체제로 전환하였다. 가정교회는 교회내의 작은 교회의 성격을 띤 것으로 성례전과 주일 공등예배를 제외한 모든 사역이 목자를 중심으로 목장에서 이루어진다. 이 가정교회에서 보다 원활한 선교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은 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다.



소양제일교회는 잘 알려진 호스피스선교 외에도 작년 3월부터 시작한 어린이집 사역, 그리고 교도소 선교를 담당하는 감안선교회, 불우한 이웃들에게 도시락을 전달하는 밥퍼선교회, 노인선교를 힘쓰는 노인선교회 등이 있다.

끝으로 이주호목사는 "이기적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야말로 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그룹이 되어야하지 않겠습니까?"라고 말한다. 우리 도시에 이러한 교회가 있다고 하는 것이 자랑스럽다.[취재 최상도, 사진 김미경]

[소양제일교회 주소 : 200-170 춘천시 퇴계동 93-1 ☎(033)262-0999]







춘천 의암리 기도원

부설 쉼터 양로원

정국성 목사



의암기도원전경



예배당



양로원 (1월준공)



휴식공간

예배 안내

- 주간 집회 매주:월~토요일 까지 시간 : 새벽 6시, 낮11시, 저녁8시
- 목요 찬양집회 - 저녁8시
- 금요 철야집회 - 금요일 밤10시부터

쉼터양로원 안내

- 노인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 치매중풍 등 몸이 불편하신분
- 사정상 가족이 모시기 힘든분
- 혼자 살고있는분
- 일기암환자 요양 및 기도생활

주소:춘천시 신동면 의암리 231-2(의암댐발전소 의암유원지내)

전화:(033)262-7923~4, 262-5694, 010-6388-7929

춘천시 지정 모범업소

유림닭갈비

대표 : 최 순 복 권사

온의동 닭갈비촌 골목 원조집

순수국산닭만 사용하는 웃음과 기쁨을 주는 믿음의 업체입니다.

본관 253-5489

별관 251-5489



소개합니다

전국지역 아동센터 공부방협의회 강원권역



전국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협의회(이하 전지공협)는 빈곤 등으로 지역사회 안에서 보호와 양육을 필요로 하는 빈곤 아동 청소년들의 전인적 발달과 권리 보장을 위해서 통합 교육 및 사회복지활동을 하며 전국적인 지역사회 공동체망을 형성하고 있는 비영리 지역아동센터 회원 상호간의 연대 활동과 유기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협의회이다.

전국지역 아동센터 공부방협의회(전지공협) 강원권역은 이런 정신을 기지고 오래전부터 교회 내에서 또는 NGO단체에서 운영되던 공부방들이 연합하여 전지공협 회원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춘천 효자교회 김종호 목사(은혜공부방)가 전지공협 강원권역 대표를 맡고 있다. 춘천지역의 회원공부방을 살펴보면, 원평교회의 신창윤 목사(꿈마을 공부방), 금성증앙교회의 마태일 전도사(햇살공부방), 갈릴리교회 최영조 목사(갈릴리 공부방), 임마누엘교회 이종백 목사(임마누엘 공부방), 등대교회 김규현 전도사(꾸러기/드림 공부방), 이 활동하고 있다. 공부방 내 주요프로그램은 기초학습과, 특별활동, 인성교육, 급식을 하고있으며 지난 1월10일에는 강원도 전체 회원공부방이 한화그룹 지원으로 전지공협 강원권역연합캠프를 속초한화리조트에서 가졌다.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 청소년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 일에 많은 분들의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린다.

(문의 : 총무 김규현 전도사 255-0091 / 011-9992-6068)

영혼의 양식

그리스도인의 나라사랑

(출애굽기 32:30-32, 로마서 9:1-3)



동부장로교회 임신영 목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를 만드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셨습니다. 나라의 흥망성쇠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약한 백성을 고치시고 위로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히 전하시며 가르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백성답게 살아야 할 것을 언제나 말씀하시고, 최후에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보여 주셨습니다.

얼마 전에 청소년의 의식을 조사한 한 설문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서울의 고등학교 학생 1000명에게 물었습니다. "남북통일이 되기를 바랍니까?"라는 질문에 30%가 되어야 한다, 23%가 잘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47%가 남북통일 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이유가 더욱 놀랍습니다.

우선 경제적인 이유에서 남북통일을 반대한답니다.
남북통일이 되면 가난한 북한을 먹여 살려야 할 텐데, 그러려면 남한 국민들이 희생을 해야 할 것이 뻔하다는 것입니다. 굳이 경제적으로 손해를 봐 가면서 통일을 할 필요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사회적인 불안정 때문에 남북통일을 반대합니다.
통일이 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혼란이 올 것이고, 잘못하다가는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굳이 그런 어려움을 감수해 가면서 통일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무척이나 영악한 생각입니다. 이미 청소년들 마음속에 나라와 민족은 그 의미를 잃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 걱정스럽습니다.
기성세대들은 어떻습니까? 나라와 민족이 내 장래를 위해 도움이 안 된다면 얼마든지 이민을 떠나고, 국적도 포기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라 사랑을 과연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로마서 9장 1절~3절은 나라를 사랑하는 사도 바울의 피 끓는 마음을 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바울은 어떤 경우에도 근심하거나 고통을 말하지 않고 지낸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전하다가 말할 수 없는 박해를 받으면서도 기뻐한다고 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라 때문에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애국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이 민족을 사랑하심을, 그리고 이 나라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 나라에서 살게 하신 이유를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복음을 주신 나라입니다. 이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특별한 사랑과 인도하심을 베푸셨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믿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며 한국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나라 이 민족을 내가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나라와 민족을 사랑해야만 하겠습니까?

첫째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치인에게, 군대의 힘에, 아니면 경제발전을 이루면, 즉 돈이 많으면 소망이 있게 됩니까? 모두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하고, 인도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는, 민족복음화를 위하여 힘쓰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율법에 얽메어 예수의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잘못을 범하고 맙니다. 이것이 바울의 마음을 너무 안타깝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를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좋은 산을 모두 파헤쳐 놓고 놀이터를 만드는가하면 곳곳마다 우상의 집이 들어서 있습니다. 우리민족이 우상과 함께하며 유흥으로 치솟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그리고 이 민족 가슴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가득차야만 소망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춘천의 복음화, 춘천의 성시화는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밝게 해야만 하는 책임이 있고, 세상을 썩지 않게 하며 살맛을 내는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 역사가 중에 석학인 미국의 라투교수는 "교회역사를 연구하면서 얻는 결론은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와 교인들이 많아지는 만큼 부정이나 불법이 그 나라, 그 사회에서 줄어들었고, 술집이나 유흥업소가 점점 줄어들어 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만큼은 예외이니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교회, 교인이 많아졌는데 부정, 불법, 술집, 교도소 수감자가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우 부끄러운 지적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진정한 애국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로 믿고 바로 행하며 사는 일입니다. 어두운 사회를 밝게 하며 부패한 나라 구석구석에 소금을 뿌리 듯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라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이 땅에 실현 되도록 복음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나라를 진정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새순교회



· 성령 충만
· 섬김
· 재생산
· 선교와 바른 삶
· 성시화와 북한선교에 힘쓰는 교회

담임목사 김헌곤

춘천시 석사동 850 ☎ 033-264-0291

기독교 대한감리회 장촌교회



·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 예배 / 기도 / 전도
· 춘천성시화
· 한반도의 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담임목사 김성호

춘천시 남산면 장촌1리 255 ☎ 033-261-0035

대한예수회 상동회 주향교회



· 주님만 향하고
· 주님의 향기가 되는
·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

담임목사 이병철

춘천 우두동 396-2(동부Ⓐ후문) 033-256-3927

물과 술의 소담(小談)

과연 성경은 술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우선, 술에 관해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면밀하게 검토해 봅시다. 지금 성경을 믿으라고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에게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귀를 기울인다면, 성경이 음주라는 악에 대항하여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바에 동의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거짓말, 뱀세, 도적질, 속이는 것, 위선, 교만, 신성모독보다도 술에 대해 더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살펴볼 때, 술과 술 마시는 것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곳이 600군데가 넘습니다.

● 창세기 9장 20-27절 – 출릉했지만 술에 취해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했던 첫 번째 사람인 노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 창세기 19장 30-38절 – 술에 취해 결국 자신의 딸과 관계를 가진 롯을 볼 수 있습니다.
● 레위기 10장 8-11절 – 성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명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볼 수 있습니다.
● 신명기 21장 20절 – 술마시는 자를 완고하고, 반항적이며 불순종하는 나쁜 습성을 가진 아들 중 하나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 재판관기 (사사기) 13장 4,7,14절 – 삼손의 어머니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 것을 주님의 천사에게서 명령받았습니다.
● 사무엘상 25장 36-38절 – 아비하고, 사악하며, 술주정꾼인 나발을 주님께서 치셨습니다.
● 사무엘하 13장 28,29절 – 술에 취해 싸움을 하던 암논은 자기 형제인 압살롬에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 열왕기하 20장 12-21절 – 벤하닷과 32명의 왕들이 천막에서 술을 마시고 있을 동안, 이스라엘의 소규모 부대가 시리아인들을 덮쳐 그들로 도주하게 만들었습니다.
● 잠언 4장 17절 – 폭력은 음주에서 옵니다.
● 잠언 20장 1절 – 지혜로운 자는 술에 빼지지 않습니다.
● 잠언 23장 21절 – 음주는 가난으로 인도합니다.
● 잠언 23장 29-30절 – 독주는 슬픔, 화, 다툼, 불평, 까닭 없는 상처들과 눈의 충혈을 만들어 냅니다.
● 잠언 23장 31절 – 술을 아예 쳐다보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 잠언 23장 32절 – 술을 마신 결과 마침내 술은 뱀처럼 물고, 독사처럼 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 잠언 23장 33절 – 음주는 사람의 마음을 간음과 불순한 생각들로 가득 차게 합니다.
● 잠언 23장 34,35절 – 음주는 사람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무감각하게 만들며, 바보처럼 아둔하게 만듭니다.
● 잠언 31장 6,7절 – 독주를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용도는 죽어가는 사람을 위한 악으로나 혹은 극약처방으로서 사용할 때입니다.
● 전도서 10장 17절 – 축복은 술을 절제하고 금하는 민족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 호세아 4장 11절 – 음행과 술은 마음을 빼앗아갑니다. 그리고 음행과 술은 나란히 손을 잡고 갑니다.
● 하박국 2장 5절 – 자기 이웃에게 술을 주는 자에게 화가 있으리라고 말합니다.
● 마태복음 24장 48-51절 – 음주는 깨어있지 못하게 만듭니다.
● 로마서 14장 21절 – 그리스도인은 형제가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술을 마시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 고린도전서 5장 11절 – 그리스도인이 술꾼과 사귀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 고린도전서 6장 10절 – 술꾼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당신이 어떻게 술에 대한 성경의 분명한 사실을 언급하지 않고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단 말입니까?
● 고린전서 11장 21절 – 주님의 만찬은 술취하기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 에베소서 5장 18절 – 그리스도인들에게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령하십니다.
● 디모데전서 3장 3,8절 – 교회 지도자들은 자신을 [술에 내어주지 말아야](not given to wine) 합니다.

가득 채워진 두 개의 잔
한 노인의 식탁 가장자리에 있네.
한 잔은 포도주, 피처럼 붉고,
또 한 잔은 물, 수정처럼 맑다네.

서로 소담을 나누다
포도주가 청명(淸明)한 친구에게 말을 건넸다네.
"이봐, 난 연회든, 잔치든, 주연이든 그런 얘기라면 자신 있다네.
지구상에서 아무리 교만하고 잘난 영혼들이라도
내가 살짝만 건드려도 쉽게 타락하고,
금새 어두운 그림자에 덮싸여 버린다네.
난 강력한 군주요, 통치자라네.
열국의 군왕들은 왕관을 벗어 던졌고,
명예의 고지에 선 지들은 실추를 당했으며,
존경받는 이름들도 먹칠을 당했지.
도덕을 가장하면서 수치만을 안겨 주었다네.
온 진지의 손을 못쓰게 만들었고,
호화로운 배들조차 심해(深海) 속으로 기라앉았다네.
실종자들의 울부짖음이 나에게 기쁨이었지.
하하! 어떤가 청명한 형제여?
이처럼 위대한 일을 자넨 해 본 적 있나?"
포도주가 비웃으며 말했다네.

맑은 물이 미소를 머금으며 말하네.
"나는 못겪난 일이나 실해당한 집주인 같은 얘기는 없지만
만 때 솔피했으나 수정과 같은 물방울로 인해
빛을 찾고 기쁨을 가졌던
어떤 마음에 대해서는 말해주고 싶네.
갈증을 식여 주었고, 이마의 땀을 씻어 주었으며,
손을 시원하게 해줬고, 혼을 구해 주었으며,
햇살 속에서 잠들다가 하늘에서 빗물이 되어 떨어지곤 했지.
지구 위에 펼쳐진 모든 자연을 깨끗이 해 주었고,
신열로 뜨거운 이마를 시원하게 해 고통을 덜어주었으며,
시들었던 초장을 온통 초록으로 덮이도록 해 주었지.

자네에게 방앗간의 밀찬 비퀴에 대해 말하고 싶네.
그 친구가 가루를 만들어 내면 나는 내 마음대로 모양을 만들었지.
또, 자네 때문에 실추된 남성다움에 대해서도 말하고 싶네.
그 남성다움의 용기를 내가 되찾아 주었고,
새로운 왕관을 씌워 주었네.
용기를 북돋워 주고, 치료해 주며,
힘을 돋우어 주어 돕는 자가 되었고,
소년 소녀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차게 했으며,
술에 포로가 되어 사로잡힌 자들을 해방시켜 주었지.
이처럼 나에 대해 말하면 할수록 기쁨 위에 기쁨이라네."

한 오래된 식탁 가장자리에서
투명한 유리잔 안에 가득 부어진 채로
포도주와 그의 청명한 형제가 함께 앉아
서로 주고받은 이야기.

술 제조업자와 술 밀매자와 술 판매자들은 당신에게 "마침내"(at the last)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친절하게도 잠언 23:31-32에 미리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백주나 포도주나 다른 것들로 빚은 술로 인한 '좋은 인생이라는 광고문들을 보면, 이것들은 결코 모든 것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술로 인해 뒤따르게 되는 "마침내"에 대해서는 전혀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술로 인해 오는 "마침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가정파탄, 이혼, 범죄, 법적으로만 결혼한 상태, 불법적인 성관계, 황폐화된 성격, 실직, 파산 등 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술에 의한 결과와 사회에 미치는 그 영향에 대해 뻔히 알면서도 및서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술이 잔에서 색을 내고, 뇌를 자극하지만, "마침내" 그것은 "뱀처럼 물 것이요, 독사처럼 쏜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글 편집부



카페 크리스챤
T:244-9117 시청 옆
http://cafechristian.cyworld.com

강원도 장애인 종합 복지관
http://www.rehabork.kr
□ 후원문의: 사회재활팀 (033-255-2491~3)
□ 후원계좌
농 협(2003-01-422132)
우체국(200022-01-002412)
200-140
강원도 춘천시 사농동 105-5

앤투어 ntours
● 할인 항공권 전문
● 전세계 호텔 예약
● 여권 및 비자 업무
● 국내 · 외 여행 알선 (수학 · 졸업 여행)
● 베낭여행 · 어학연수
● 전세 버스 알선
● 신혼여행
● 유로패스/JR패스 예약 및 발권
● 해외선교 후원
대표 김 지 현 집사(춘천동부 교회) (011-9057-3946)
TEL:244-7400 도청 밑에 위치

聖地로의 특별한 초대
♥ 성지 순례 ♥ 여권 비자
♥ 단기 선교 ♥ 항공 발권
성지순례 프로그램 센터 강원지부
우리여행클럽 ☎ 242-6400

/ 포 / 토 / 에 / 세 / 이 /



글 곽 영 준 목사 (서부감리교회)

나에겐 꿈이 있다

나에겐
꿈이 있다

날개에 힘 오르고
딛고 설 땅 굳어지면
마침내 박차고 오를

그 꿈 이루는 날
고공에 올라
지평선 저 먼 곳으로
쉬임 없이 날아가
해지지 않는 나라에 이르러

오랫동안 날아온
뒤안길 바라보며
저 멀리 아스라한 옛이야기
추억하리라

나에겐 꿈이 있다
아주 높이
아주 멀리
그리고 오래 오래 나는 꿈이

구인 · 구직광고

"너의 장막 터를 넓혀라. 장막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펴라. 너의 장막 줄을 길게 늘이고 말뚝을 단단히 박아라."(이사야 54:2)
성시신문에서는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신뢰있는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도우려고 합니다. 믿음의 반석위에 세워진 업체와 준비된 구인자의 만남의 통로를 세워 나가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행 사 안 내

▣ 월드비전 ▣

"노인복지대학 신입생모집"
◎개설학과 : 음악학과, 민요학과, 서예학과, 스포츠댄스학과
◎모집기간 : 2005년 3월 2일(목)까지 (이후 신청가능)
◎입학 및 개강식 : 2005년 3월 2일(목) 10:00
◎대상 : 60세 이상 어르신(선발인원 30명)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 사진 1장, 1학기회비 20,000원
◎문 의 처 : 254-7244 당당 관지은 사회복지사
※ 월드비전은 세계최대의 기독교 국제구호단체입니다. ※

사랑의 빛 월드비전 World Vision
강원지부
춘천종합사회복지관
www.gangwon.worldvision.or.kr
강원 춘천시 효자1동 373-90
· 한사랑(1만원) · 배사랑(2만원) · 늘사랑(3만원)
월드비전 후원계좌 : 농 협 240-01-078120
☎ 254-7244 조 흥 515-01-038052
우체국 300022-01-001322
예금주 월드비전

독자의 소리

결코 잊지 못할 내 인생의 기점,
고3 영성훈련

하 성 웅(춘고 3)

1월 31일 예수사림운동의 영성훈련을 마치고 집으로 오는 길이 너무도 허전했다. 한 달 동안 정말 열심히 주님을 알기 위해 노력하며 자신의 귀한 시간을 헌신한 영성훈련동기들과 간사님, 힐퍼님들과의 소중한 만남이 끝난다는 것이 너무도 아쉬웠다. 나의 19년 인생 중 가장 기억에 남을 소중한 시간들이었다. 이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영성훈련을 시작할 때 많은 것을 포기했어야 했다. 우선 나의 시간을 드려야 했다. 사실 대학은 가야하는데 집안 경제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조금이나마 등록금을 보태고 싶었다. 그래서 과외도 생각해봤고 음식점 아르바이트로 생각했다. 하지만 이 일을 하기위해서는 영성 훈련을 포기해야만 했다. 그러나 주님의 예비하심을 믿고 영성훈련을 선택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다. 생각지도 못했는데 수시2학기로 합격한 감리교신학대학에서 연락이 왔다. 수시2학기 수석이니 아마 장학금이 있을 거라고 기다려 보라는 것이다. 그리고 후에 전반학기 장학생으로 선정되어서 입학금이 면제 된다는 연락을 받았다. 주님께서는 이미 모든 일을 예비해두셨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뜻을 따랐더니 이 놀라운 일로 나를 도우셨다. 다시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다.

영성훈련 기간 동안 선교사님들의 특강과 계획된 모든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 메시지를 주셨다. 특히 로마서는 큰 의미로 다가왔다. 가장 절실히 느낀 것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수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아들 예수를 즉게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래서 아들을 화목제물로 끝내는 십자가 못 박히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의인이라 칭하시는 구원사역에 담겨진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었다. 전에도 알고 있었던 이 사실이 아주 특별하게 다가왔다. 내 안에 있던 죄들이 너무도 부끄러웠고, 하나님께 너무도 죄송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내가 짓는 죄 중에 가장 큰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구나…
예수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나는 의인이라 불리 울 수 있지만 죄의 본성은 여전히 내 마음속에서 존재하며 나를 괴롭힌다. 나와 여러분은 평생 전쟁을 해야 할 것이다. 죄와 사망의 권세와…그렇지만 내가 죄를 짓 때 하나님은 정말 마음이 찢어짐듯 아프시다는 것, 이것을 꼭 마음속에 깊이 새길 것이다. 그러면 조금은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절제할 수 있을 것이다.

'열두 제자'를 통해서 또한 주님의 메시지를 받았다. "죽어라...나를 위해..."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인생은 예수그리스도를 위해 기꺼이 죽을 수 있을 만큼 열정적이고 용기 있는 인생이 되었다. 내 마음속에 커다란 불이 생기기 시작했다. 나도 죽고 싶다 주님을 위해...주님을 위해 인생을 멋지게 드리고 싶다.

영성훈련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선물, 어떻게 내가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를 제시해준 멋진 선물이다. 다시 한 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시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삶속의 미담

■ 예수님의 사랑을 몸으로 실천

남춘천감리교회 민병업(58) 장로는 지난 2월 23일 연세세브란스병원에서 자신의 신장을 다른 이에게 주어 새 생명을 선사하였다. 평소 언론 등을 통해 장기를 기증받지 못한 환자들이 어렵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든 도움이 되고 싶다고 생각한 민장로는 2000년 장기기증서약을 하였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몸으로 실천한 것이다.

■ 춘천중앙장로교회(담임목사:사공 정)에서 시무하고 계신 허대영 장로님께서 이번 강원대학교 졸업식(2005. 2. 22)에서 교육학 박사를 수여받았다.(현, 강원도 교육과학 연구원 교육과정 부장)

춘천경찰서 교경협의회
2005년도 임원

회 장	최 현 묵 목사(남춘천침례교회)	권 기 호 목사(시민장로교회)	
부 회 장	조 영 춘 목사(예광침례교회)	이 병 칩 목사(주항장로교회)	
	이 춘 일 목사(베드로순복음교회)	김 태 권 장로(등부장로교회)	
총 무	김 혜 영 목사(중앙장로교회)	서 종 신 장로(광장감리교회)	
서 기	박 종 식 목사(십춘천그리스도의)	한 명 수 장로(청대감리교회)	
회 계	정 명 훈 목사(예강장로교회)	김 원 호 권사(석사감리교회)	
협동총무	소 영 생 목사(만리동침례교회)	임영일 안수집사(춘천침례교회)	
	송 용 학 목사(신광장로교회)	감 사	양 기 태 목사(신남감리교회)
	송 문 식 목사(은성장로교회)		

한국장로교연합회
춘천지회 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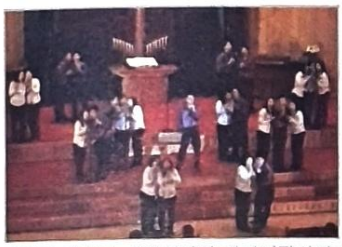
회 장	김 유 식 목사(한신교회)	011-361-1995
총 무	김 종 익 목사(광명교회)	019-261-5572
부 총 무	지 태 성 목사(춘천교회)	011-9010-5393
서 기	정 재 호 목사(늘사랑교회)	010-6416-8150
부 서 기	김 혜 영 목사(중앙교회)	019-420-0695
회 계	전 은 풍 장로(제일교회)	010-5369-1084
부 회 계	김 학 구 장로(동부교회)	011-371-4515

♡ 2005 춘천기독교연합회 임원모임



춘천기독교연합회에서는 2월 2일(수) 오전 7시 남춘천감리교회에서 2005년 정기모임을 가졌다. 새롭게 조직된 임원들은 앞으로 있을 3.1절 기념연합예배와 십자가평화대행진에 대해, 그리고 2005년의 전반적인 기독교행사에 대해 논의하고, 춘천의 교회들의 연합과 성시화에 대해서 폭넓은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 컨티넨탈싱어즈 춘천공연



한국컨티넨탈싱어즈 공연이 2월 15일(화) 오후 7시 석사감리교회에서 열렸다. 1967년 미국에서 시작된 비영리 사역단체인 컨티넨탈싱어즈 메넌 미국본부에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하나의 주제로 작곡, 편곡하여 이것을 다시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태리어,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등 세계 각국의 언어로 번역되어 전세계 컨티넨탈싱어즈에서 동일하게 사용되어진다. 한국컨티넨탈싱어즈도 11집 '비상'을 발매한 후 전국 투어 공연 중에 있다.

♡ 월드비전 노인복지대학 졸업식 및 수료식



지난 2월 17일(목) 오전 10시 30분 월드비전 춘천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노인복지대학 졸업식 및 수료식이 열렸다. 지역사회 노인들을 대상으로 레크레이션과 각 분야의 교양강좌 실시, 택견, 포크댄스 교육을 실시하였던 노인대학은 11명의 졸업생과 37명의 수료생들에게 졸업장 및 수료장, 개근상, 노력상, 공로상 등을 전달하였다. 이날 제일장로교회 박상호목사는 '젊게 사는 신앙인'이란 주제로 설교말씀을 전하였고, 춘천어린이집 원아들의 졸업축하공연도 있었다. 이명신 학장은 "졸업 후에도 일선생활에서 기쁘고 즐겁게 생활하시길 기대하고, 앞으로도 노인들이 사회적 상실감을 극복하고 건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노인복지대학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굳은 의지를 표명하였다.

♡ 제86주년 3·1절 기념 연합예배





지난 2월 27일(주일) 오후 7시 석사감리교회에서는 춘천의 모든 교회들이 모인 가운데 2005년 3.1절 기념 연합예배를 드렸다. 춘천기독교연합회 주최로 열린 이날 예배는 본회 부회장 김유식목사의 사회, 부회장 임운식장로의 기도, YMCA회장 차혜자권사의 성경봉독, 봄내제존비위원장 한균목사의 인도로 특별기도의 시간을 가졌다. '세계평화와 남북통일을 위해서' 사공정목사가, '나라와 민족과 지도자들을 위해서' 박인관목사가, '교회의 연합과 춘천성시화를 위해서' 오승룡목사가 기도하였으며 설교는 서울 광림교회 원로목사이신 김선도목사가 "진리가 자유케 하는 나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였다. 이날 3.1절 의미를 되새기며 손학균목사가 독립선언문을 낭독하였고 허천국회의원의 축사와 김주환목사의 선두로 만세삼창과 함께 애국가를 제창하였다. 기독교인이 중심이 되었던 3.1절의 숭고한 정신을 상기하며 이날의 모든 순서를 권오서감독의 축도로 마쳤다.

♡ 제4회 강원도와 나라를 위한 조천기도회



대한민국국가조찬기도회 강원도지회는 지난 2월1일(화) 오전7시 김연숙웨딩홀에서 시군지역의 기관장들과 목회자들, 평신도들이 모인 가운데 조찬기도회와 2005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본회 부회장이신 이하규장로의 사회, 본회 회장 허천장로의 개회인사, 춘천기독교연합회장 유진형목사의 기도, 춘천YMCA회장 차혜자 권사의 성경봉독, 그리고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조영춘목사의 인도로 특별합심기도의 시간을 가졌다. 특별기도는 '강원도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원종국목사가, '나라와 민족, 국가지도자를 위해' 김헌곤목사가, '강원도의 복음화와 춘천성시화를 위해' 마철규장로가 '북한선교와 평화적 통일을 위해' 조영호목사가 기도하였다. 이날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 최성규목사가 '함께 살자'란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였고, 김청수감독의 축도로 기도회를 마쳤다. 조찬 후 진행된 정기총회에서는 2004년 결산보고와 2005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승인하고 고문지도목사 100명과 자문위원 56명을 위촉하였으며 이사와 부회장 등의 임원을 추가로 선출하였다.

♡ 제32대 성결교부흥사 회장 취임감사예배



지난 2월 18일(금) 오전 11시30분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부흥사회 대표회장으로 추대된 이원호목사 취임감사예배가 소양성결교회에서 열렸다. 본회 신임회장 김장배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예배는 회장 원팔연 목사의 기도, 총재 이정복목사가 '파수꾼의 사명'이란 주제로 말씀을 전하였다. 이날 소양교회의 아이노스찬양대와 교역자의 축가가 있었고, 총회장 강선영목사의 격려사와 본회 부총회장 김종륭장로, 한국기독교부흥협의회대표 유중현목사, 예성부흥사회대표 이등석목사의 축사가 있었으며 증경총회장 윤철중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경북구미 출신의 이원호 목사는 서울신대와 연세대신학대학원을 나왔으며 지난 1987년부터 소양성결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다.



♡ 부활절 십자가 평화대행진 계획위원모임



춘천기독교연합회는 2월 25일(금) 오전 6시 30분 춘천중앙장로교회에서 2005년 부활절 십자가평화대행진 문화축제를 위한 계획위원회가 열렸다. 이날 약400여명의 목회자와 장로들이 모인 가운데 3월 12일(토)에 열릴 십자가평화대행진 발대식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위해 준비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 CCF독서캠프스쿨



지난, 2월 21일부터 3박 4일의 일정으로 광성교회 훈련원에서는 제1기 CCF독서캠프가 열렸다.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을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창의적 사고력을 가진 리더로 양성하기 위해 기획하게 된 CCF독서캠프스쿨은 30여명의 초·중·고등부 학생들이 참석하여 독서의 중요성은 물론 미래를 열어가는 꿈을 가진 하나님의 인재가 되기 위해 훈련을 받았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최영조목사가 가치관학습과 글쓰기학습, 인생설계학습 등의 주강의를, 고재만목사와 김종호목사가 영성학습 강의를 진행하였다. 그밖에 영상학습, 인터뷰학습 등 생소한 학습프로그램을 통해 참석한 학생들의 생각을 자극하였다. 앞으로 CCF독서캠프스쿨에서는 학생들을 지도할 교사를 양성하는 교사양성프로그램과 부모들을 위한 부모교육프로그램 등을 준비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제 2회 할렐루야컵 전국교회대항 축구대회

1. 기 간 : 2005. 4-7월 지역 예선전/ 24강전 - 8. 15(월)/ 12강전-10. 3(월)
2. 장 소 : 지역 예선전은 16개 시도 경기장, 24강 이후 경기는 수원 월드컵 보조구장
3. 신청 방법 : 홈페이지나 팩스로 신청
   팩스 (02) 469-4293, 홈페이지 www.wsmk.org
4. 참 가 비 : 지역예선전 10만원/ 24강전 10만원/ 12강전 20만원
   구좌번호 : 국민은행 042601-04-022065 세계 스포츠 선교회
5. 신청 마감 : 2005. 3. 31
6. 문 의 : 한국축구선교협회 (02) 469-4291-3 http//cafe.daum.net/KFMA
   강원도축구선교협회 (033) 251-3721 고영일 목사

SSO TOTAL DESIGN
쏘인테리어
교회건축연구소
033-242-5573
018-330-0433
1 OFFICE : 춘천시 퇴계동 891-1 대원B/D 7F
2 OFFICE : 춘천시 효자3동 607-2
STUDIO : 춘천시 서면 당림 1리 81-5

사 설



생명에 대한 바른 인식능력(認識能力)

박 상 호 목사
본보편집장 춘천제일장로교회 담임

인식능력은 사물을 분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며, 인식이란 어떤 사항에 대하여 분명히 알고 그 뜻을 바로 이해하는 일이다. 인식능력은 혹 선천적일 수도 있고 교육이나 훈련에 의하여 생길 수도 있다. 그러나 참고할 일은 성도는 바른 인식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훈련되어져야 한다.

우리는 인식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모자라는 사람으로 취급하거나 혹은 삐딱한 사람이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빙점"의 작가 미우라 아야코의 짤막한 수필 가운데 한 할머니의 이야기가 나온다. 할머니가 친구 집을 방문해 커피 한잔을 대접받았다. 그런데 커피에는 설탕이 들어 있지 않았다. 친구가 애기에 정신이 팔려 설탕을 내놓지 않았던 것이다. 그날 밤 할머니는 자살했다. 설탕이 들어 있지 않은 커피를 대접받은 일이 몹시 우울하고 자존심이 상했던 것이다.

지구상에서는 하루 평균 1천여명, 연간 50여만명이 자살한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하루 평균 200여명이 자살한다고 한다. 근간 여배우 자살사건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다고 한다. 분명한 것은 그가 자신을 행복하게 생각지 않았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행복에 대한 바른 인식문제라고 생각된다.

행복이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이다. "런던 타임즈"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에 대해 공모한 적이 있었다. 1위부터 4위를 차지한 행복의 정의는 다음과 같았다. 1위 모래성을 막 완성한 어린아이. 2위 아기의 목욕을 다 시키고 난 어머니. 3위 세밀한 공예품을 만족스럽게 완성하고 휘파람을 부는 목공. 4위 어려운 수술을 성공하고 막 한 생명을 구한 의사라고 하였다. 목표성취가 행복일 수도 있다.

성경 사도행전 3:1절 이하에 보면 성전 미문 곁의 앉은뱅이 거지의 이야기가 나온다. 그는 걷기를 포기한 사람이다. 그는 단순히 하루하루를 구걸하면서 살아간다. 그러다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 그는 앉은뱅이로부터 해방되었다. 그가 성전 앞에 앉아 있었으나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생활을 하는 사람이었다. 이제 그는 성전으로 들어가 구걸하던 입으로 하나님을 찬미한다. 성전에 대한 그리고 삶에 대한 새로운 인식능력이 생긴 것이다.

성도는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바른 인식능력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들뿐만 아니시고 목표가 있게 하셨음을 인식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값어치에 대하여 재인식하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서 자녀로 삼았음을 재인식하자.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매우 귀중한 것이다. 함부로 취급하는 풍조는 사라져야 한다. 특별히 예수 고난과 부활의 절기를 맞이하면서 생명에 대한 바른 인식능력을 소유하여 자신의 생명을 귀히 여기듯 다른 사람의 생명도 귀중히 여기자. 영혼과 함께 목숨도 귀중히 여기자. 주님은 말씀 하셨다. 마16:26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생명에 대한 바른 인식능력을 소유하자.

❀ 알려드려요

◆예수사람운동
1) '식원 수련회'
일시: 2월 28일(월) 오전10시부터
장소: 평화감리교회
문의: 244-5400/011-9901-8291
[cafe.daum.net/holykids]

◆한국대학생선교회(C.C.C.)
1) '금요채플'
일시: 매주 금요일 저녁7시
장소: CCC회관
문의: 254-5776 / 011-216-3621

◆예수전도단
1) 예수전도단 춘천 화요모임
춘천과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모임
일시: 매주 화요일 저녁6시30분부터
대상: 모든 그리스도인
2) 독수리 예수 제자훈련학교(RED TS)
일시: 5월 6일(금) ~ 10월 7일(금)
문의: 252-1128 / 011-9490-6612

◆JDM
1) '춘천지구 전체 개강예배'
일시: 3월 7일(월) 오후 7시
장소: 호신나 순복음교회(강원대의대 쪽문 위치)
2) '신입생 환영회'
일시 : 3월 18일(금) 오후 7시 30분
장소 : 의암기도원(의암댐 아래)
3) '부활축전'
일시 : 3월 28일(월) 오후 7시 30분
장소 : 중앙성결교회(예정)
4) '이동원목사 설교세미나'
일시: 3월 11일(금) 오전 10시 ~ 오후 5시
강사: 이동원 목사(지구촌교회)
대상: 춘천지역 교역자 및 캠퍼스 사역자 등등
장소: 세계제자훈련원(WDTI)
문의 : 033)252-3192 /011-9058-3192
5) '각 캠퍼스별 모임안내'
1) 강원대학 :큐티모임 - 월~금 오전 8시 동아리방(백록관309호)
기도모임 - 월~금 오후 6시 동아리방(백록관 309호)
목요채플 - 매주 목요일 오후 7시(강의실)
2) 한림대학 :큐티모임 - 월~금 오전 8시 동아리방(학생회관 JDM동방)
기도모임 - 월~금 오후 6시(동아리방)
목요채플 - 매주 목요일 6시 30분(동아리방)
3) 교육대학 :큐티모임 - 월~금 오전 8시 동아리방
목요채플 - 매주 목요일 6시 30분 동아리방
4) 한림성심대 : 목요채플 - 매주 목요일 6시 30분

◆IVF
1) '사역전략회의'
일시: 3월 2일(수) ~ 3일(목)
장소: 아시아선교원 대상: 간사진원
2) '새내기 배움터'
일시: 3월 14일(월) 오후 2시 ~ 11시
장소: CC포커스(CC 볼링장3층) 대상: 대학교 신입생
3) '세계지학교'
일시: 3월 21일(월) ~ 6월 둘째주 월요일 오후7시 ~ 10시
장소: 아시아선교원
대상: 각 대학 2학년
문의: 252-5200/아시아선교원
4) 캠퍼스 정기모임 안내
강원대 : 매주 화 오후6:30분 (문의:한제남 간사 011-367-9120)
한림대 : 매주 화목 오후6:30분(문의:이용훈 간사 016-444-7406)
교육대 : 매주 화 오후6:30분 (문의:박용한 간사 017-374-6865)
성심기능대 : 매주 화,목 오후6:30분 (문의:박용한 간사 017-374-6865)

◆어린이 진도협회
1) 봄학기 새소식반 주간 강습회
일시: 3월 7일(월)부터 5월 23일(월)까지
•매주 월요일 오전반 10:00~12:30 / 저녁반 7:00~9:30
장소 : 베드로선교센터 5층
등록금 : 1인당 20,000원 선착순 50명
문의 : 253-1443, 242-8291, 018-292-8839
이메일 : j91ha-ra@hanmail.net

◆베드로선교센타
1) 선교세계관학교(MPS) 오리엔테이션
일시: 3월 5일(토) 오후3시30분~6시
2) 선교세계관학교(MPS) 개강
일시: 3월 12일~5월 14일 매주 토요일 오후3시
장소: 베드로선교센터 5층 추수홀
문의: 253-3399/019-9903-1148

◆춘천 제2기 아버지학교
1) '춘천아버지학교 비전2005(축하공연)'
일시: 3월 5일(토) 오후 6시40분~10시
장소: 춘천중앙성결교회
대상: 춘천1기 수료자, 스텝, 2기 등록대상자
그 외 초청인사 등 부부 및 가족동반
2) '춘천 제2기 아버지학교' 개강
일시: 4월 2일~30일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장소: 순복음춘천교회
문의: 253-2741 / 010-3088-5079

◆부활절기념 십자가평화대행진 발대식
일시: 3월 12일(토) 오후 2시
장소: 삼천동 시민공원 야외음악당
문의: 256-1260 / 017-370-4831

◆동부연회 실업안선교회 정기모임
일시: 3월 7일(월) 오전 10시30분
장소: 석사감리교회 (하이테크벤처타운 애니메이션바둠관 시청)
문의: 017-370-4831

◆GBT
위클리프 스쿨 개강
일시: 3월 21일(월) 저녁 7시
장소 : 효자동 예담교회
문의 : 김대원 011-367-6085, aiya79@hanmail.net

< 성시신문 후원자를 찾습니다 >

후원계좌 : 농 협 203-02-280238 조남진
조 흥 716-01-001389 조남진
우체국 200022-02-129749 조남진

1구좌 5천원, 2구좌 1만원
(성시화를 위한 구독헌금에 동참합시다)

[성시화 후원자 명단]

강촌감리교회	나눔성결교회	남춘천감리교회
늘사랑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순복음하나교회
사암중앙교회	소양성결교회	사랑의침례교회
새순교회	사우동장로교회	온누리장로교회
열린교회	예광침례교회	중앙장로교회
석사감리교회	춘천성결교회	봉화감리교회
동부장로교회	제일장로교회	한빛장로교회
천일현수막	헤비타트(춘천지회)	의암기도원
우리여행클럽	엔루어	유림닭갈비
쏘인테리어	디티피아	농협신교회
김 준 언	김 길 홍	김 현 철
김 영 명	민 병 업	박 동 환
성 기 온	신 성 균	신 종 철
안 미 애	안 정 숙	엄 원 남
오 흥 수	이 용 규	이 관 호
이 학 규	유 근 창	장 기 영
정 찬 복	조 은 제	최 경 용
최 상 호	최 치 광	한 희 현
황 병 찬	허 순 영	홍 성 운
홍 순 복		

